

# 한국의 도시간 임금격차

박 영 범\*

## 〈目 次〉

- I. 서 언
- II. 도시간 임금격차의 제 요인
- III. 임금함수 추정
- IV. 도시간 순임금격차
- 參考文獻

## I. 서 언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한국의 고도성장은 지역간 불균형성장을 포함하여 각종 불균형을 수반하였다.(최근의 민주화·자율화추세와 함께) 성장일변도의 발전전략에 대한 반성과 분배와 형평 차원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주소득원일 뿐 아니라 지역경제 비용구조의 주요결정요인인 임금의 도시(도청소재지 이상의 규모) 간 임금격차를 제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을 도시에 국한시킨 것은 지역간 임금격차의 상당부분이 생활비의 차이에 의하여 설명되는데 생활비추정에 필요한 소비자물가지수는 대도시에 한하여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임금함수 추정에 사용된 직종별 임금조사가 고용인 10인 이상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고용인 10인이하 사업체의 비중이 3차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제조업으로 분석대상을 국한하였다.

한국의 지역간 임금격차에 대한 최근의 실증적연구는 박 환구(1984)를 들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박 환구 박사의 연구에 비하여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였고(본고는 1986년 자료를, 박 환구 박사는 1980년 자료를 사용), 지역간 임금격차의 주요 설명변수인 생활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필자는 본고의 자료 및 원고정리를 도와준 산업연구원 최휴종 연구원과 최옥희 연구조원께 감사드립니다.

비의 차이가 조정된 후 도시간 순임금격차가 추정되었다.

II 장에서는 지역간 임금격차 제요인(분석대상 도시별 특성과 연관하여) 이, III 장에서는(도시간 임금격차 요인 중) 생활비와 근로자의 질을 비롯한 공급측면 요인의 도시간 차이를 조정한 후의 임금격차 추정을 위한 임금함수가 설명된다. 끝으로 IV 장에서는 임금함수 추정결과 나타난 순임금격차의 특성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 II. 도시간 임금격차의 제요인

1986년 현재(지역별 물가측정이 가능한) 각도시의 제조업근로자(월급여 총액에 전년도 상여금 1/12 을 합한)월평균 명목임금은 <표 1>에서 보듯이 서울이 30만 9천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 전주, 광주의 순으로 나타났다.<sup>1)</sup> 지역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여 수도권 및 호남권이 높고 중부권 및 영남권이 낮다. 서울 다음으로 많은 제조업근로자가 살고 있는 부산의 임금이 서울임금의 78%에 불과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와 같은 도시간 명목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주요변수들은 (i) 근로자의 질의 차이, (ii) 생활비, (iii) 보상격차(Compensating Differentials), (iv) 제도적요인 및, (v)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들 수 있다.

### 1. 근로자의 질

지역별로 산업발전유형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른 지역근로자 질이 차이가 난다. 자동차·전자 등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우수하고 따라서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표 1>는 도시간 임금격차가 해당지역 근로자의 특성에 의해 상당부분 설명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의 임금이 서울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섬유·의복 및 신발산업 등 저임금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전체근로자의 80% 이상이고 생산직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부산 근로자의 근속년수는 1년, 학력은 1.5년 서울 보다 낮다.

대구지역도 저임금업종인 섬유·의복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커서(전 근로자수의 60%) 서울과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근속년수, 학력 등 근로자의 질은 부산보다 높으므로 부산보다는 평균임금이 높다.

1) 충청도 경제기획원에서 물가동향을 조사하고 있으나 제조업 종사근로자의 수가 적으므로(서울지역 총근로자의 1% 미만임)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표 1〉 도시별 임금 및 근로자 특성(제조업) : 1986

	평균임금 (원)	생활비	실질임금 (원)	평균근속 년 수	평균학력 년 수	평 연 평	산업구조(%)		직종구조(%)			기업규모(%)		성별구성(%)	
							저임금 업 종	고임금 업 종	전문· 관리직	사무· 판매직	생산직	중임 500 인 이하	중임 500 인 이상	남 성	여 성
서울	309,928 (1,000)	100.0	309,928 (1,000)	3.96	11.45	28.7	58.83	41.17	9.28	32.07	58.65	36.85	63.15	54.57	45.43
부산	242,364 (0.782)	95.4	254,050 (0.82)	2.95	9.94	27.7	82.18	17.82	2.68	10.35	86.97	29.85	70.15	42.96	57.04
대구	229,803 (0.742)	91.8	250,330 (0.808)	3.30	9.95	28.4	78.28	21.72	5.71	13.65	80.64	74.58	25.42	47.93	52.07
인천	278,199 (0.898)	93.8	296,587 (0.957)	3.81	10.6	29.7	60.31	39.69	5.35	15.91	78.74	31.82	68.18	64.3	35.70
대전	228,859 (0.738)	90.0	251,770 (0.81)	3.54	9.98	26.7	70.94	29.06	2.87	13.17	83.96	43.24	56.76	41.89	58.11
창주	242,672 (0.73)	93.8	268,442 (0.866)	3.48	10.93	25.5	92.42	7.58	5.48	23.02	71.50	11.75	88.25	35.25	64.75
광주	275,617 (0.889)	95.7	288,001 (0.929)	4.35	10.14	30.3	46.59	53.41	10.44	11.25	78.31	42.97	57.03	62.65	37.35
전주	278,033 (0.897)	89.5	310,065 (1.002)	5.11	10.55	30.2	70.91	29.09	8.37	5.20	86.43	34.36	65.64	60.03	40.97

자료 :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 Tape, 1986

주 : 1) 임금=원급여+월 초과 급여+(전년도 상여금/12)

2) 저임금업종은 제조업 27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최저임금법시행령에서 저임금  
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임.

인천은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 학력 등이 서울 다음으로 높고 산업구조도 서울과 비슷하므로 서울 다음의 높은 실질임금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성근로자의 비중이 전도시중 가장 높다.

대전과 청주 중부권 지역도 근로자의 질, 산업구조 등에 의하여 서울과의 임금격차가 상당부분 설명된다. 저임금직종의 비중이 높고 생산직의 비중이 크므로 근로자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청주의 실질임금이 대전보다 7% 높은 것은 청주의 직종구조 중 사무·판매직의 비중이 크고 대기업의 비중이 88%로서 8개 도시중 가장 높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주 호남권 지역은 제조업근로자의 수가 적고 산업구조도 취약하나 근로자의 질이 높고 남성근로자의 비중이 크므로 고임금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서울과 비슷한 실질임금을 보이고 있는 전주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는 5.1년으로 전도시중 가장 높고 평균연령도 서울보다 1.5년 높다. 광주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도 4.4년으로 전주 다음으로 높고 평균 연령은 8개 도시중 가장 높다.

## 2. 생활비

지역별 임금격차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생활비(Cost of Living)이다.<sup>2)</sup> 경제기획원에서 도시소비자 물가지수 추정을 위해 조사하고 있는 쌀을 비롯한 411개 품목의 1986년 3월말 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 지역에 대한 생활비수준을 계산하였다.<sup>3)</sup> 서울지역의 생활비수준이 가장 높고 광주(서울대비 95.7%), 부산(서울대비 95.4%) 순으로 나타났다. 전주의 생활비 수준이 서울대비 89.5% 여서 8개도시중 가장 낮다.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각 도시별 실질임금을 서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는데, 도시별 실질임금은 서울과 전주가 비슷하고 부산, 대구, 대전 등이 서울의 80%정도여서 물가수준을 고려할 때도 수도권과 호남권의 평균임금이 높고 중부권과 영남권의 임금이 낮다.

## 3. 보상격차(Compensating Differentials)

보상격차는 개인의 경제활동 목표가 임금극대화(Income Maximization)라기 보다는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컨대 서울의 자녀교육환경

2) 미국의 경우 남북간의 지역격차의 주요요인이 생활비차이라는 것이 Goelho and Ghali(1971), Bellante(1979)에 의해 계량적으로 증명되었다.

3) 생활비추정 방법설명은 III장의 모형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이 광주의 환경보다 낫다면 자녀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광주의 임금이 높다고 해도 서울로 이주 할 것이다. 그러나 비화폐적 혜택(Nonpecuniary Attributes)의 차이가 도시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는 없다. 개개인에 따라 비화폐적 혜택에 대한 선택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교육환경이 광주보다 좋다고 할지라도 자녀교육보다는 광주의 공해없는 깨끗한 환경에 보다 가치를 부여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자녀교육에 가치를 부여하는(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근로자의 임금은 동일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간의 이주를 고려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지역간 비화폐적 혜택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지역간 임금격차와 비화폐적 혜택과의 관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 4. 제도적 요인

제도적 요인중 가장 큰 요인인 노동조합에 의한 도시간 임금격차는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중반까지 노동조합의 힘이 취약하였으므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외에도 도시간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요인은 지역내에서의 공기업 노동시장 규모이다. 공기업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를 받으므로 사적부문과는 다른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독점적 시장구조로 인하여 공기업의 근로자는 동질의 사기업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sup>4)</sup>

지역내 공기업비중이 지역임금에 미치는 영향정도는 공기업의 근로자 채용기준과 파급효과(Contamination Effect)에 의해 좌우된다. 만약 근로자가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살아야 한다면 근로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공기업에의 진입을 위하여 현재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노동시장중 공기업비중이 큰 지역에 살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대부분의 공기업은 근로자 채용시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이에 의한 지역간 임금격차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공기업의 지역내 비중이 크면 클수록 사적부문에의 영향이 크므로 사기업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 5. 지역노동시장의 특성

국가경제가 내수중심의 안정적인 균형성장기조를 유지한다면 위에서 언급된 공급 측면 요인에 의하여 대부분의 도시간 임금격차가 설명된다. 지역내 상품이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된다면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장기적으로는 수평적 공급

4) 공기업 노동시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박 세일(1986)을 참조.

곡선에 의하여 지역내 임금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sup>5)</sup>

그러나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정부주도의 수출지향적 고도성장이었다.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는 수출품의 가격은 해외시장 동향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노동의 수요곡선은 수평적이고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지역내 취업인구의 규모만을 결정한다. 따라서(우리상품의 국제 경쟁력은 산업에 따라 값싼 노동력에 있으므로) 지역내 수출산업의 비중이 클수록 임금이 낮게 될 수 있다.<sup>6)</sup>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경공업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산과 대구 근로자의 낮은 임금은 어느 정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설명된다.

또한 고도성장기조에서는 지역간 성장속도에 따라 지역간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도시간 실질임금격차를 나타내는 상이계수는 <표 2>에서 보듯이 1976년 0.095, 1979년 0.142, 1982년 0.125, 1984년 0.102, 1986년 0.092로 변하였다. 따라서 임금격차는 1970년대 후반에 심화되었다가 1980년대 초반이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수표준편차에 의한 임금격차도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sup>7)</sup>

도시간 임금격차의 이와같은 변화는 국내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70년대 후반에 도시간 임금격차가 심화된 것은 서울지역의 임금상승폭(76-79년간 35%)이 다른 지역(동기간에 5-26%) 보다 크기 때문인데, 서울의 임금상승은 사상 유례없는 국내경기 호황에 따라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발달되어온 제조업이 각 지방으로 확산되면서(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 후발개도국이 선진국의 저임금·사양산업에 주력하듯이) 서울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고임금근로자의 구성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1980년대 도시간 임금격차 완화경향은 1980년 초반의 경기불황 이후 국내경기 진정에 따른 경제의 자율조정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8)</sup>

5) 수요측면 요인에 의한 지역임금수준 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Johnson(1983)와 Muth(1983)를 참조.

6)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1986년 현재 수출산업의 1인당 인건비는 내수산업의 72%이다.

7) 박 원구(1984)는 시·도별 지역간 전산업 명목임금격차도 1970년대 후반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각종 임금격차는 1970년대 후반에 축소되었다. 1976-79년 기간에 전산업 임금분포의 상이계수는 0.911에서 0.847로, 대수분산은 0.470에서 0.411로 감소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에 제조업 전문기술직에 대한 생산직 임금비율은 0.355에서 0.42로, 종업원 30인 이하 사업체 근로자의 5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임금에 대한 비율은 0.667에서 0.935로, 대졸근로자에 대한 중졸근로자 임금비율은 0.269에서 0.279로 증가하였다.

8) 1975-80년 기간에 서울지역의 제조업취업자는 14% 증가하였으나 다른 도시지역은 30% (전국평균증가율 26%) 증가하였다. 한편 1980-85년기간에 서울의 제조업근로자 증가율은 9%, 전국증가율은 10%이므로 1980년 이후 서울의 제조업 취업자증가율은 전국평균증가율과 비슷하다.

〈표 2〉 도시별 실질임금격차 추이(제조업) : 1976-1986

단위 : 원

	1976	1979	1982	1984	1986
서울	193,873(1.00)	261,935(1.00)	234,612(1.00)	275,899(1.00)	309,928(1.00)
부산	169,038(0.87)	211,189(0.80)	203,824(0.87)	228,843(0.83)	254,050(0.82)
대구	176,355(0.91)	207,714(0.79)	200,082(0.85)	231,023(0.84)	250,830(0.81)
인천	217,475(1.12)	274,903(1.05)	256,128(1.09)	277,657(1.01)	296,587(0.96)
대전	197,137(1.02)	232,103(0.89)	202,622(0.86)	224,425(0.81)	251,770(0.81)
청주	190,453(0.98)	200,073(0.76)	178,209(0.76)	218,519(0.79)	268,442(0.87)
광주	161,066(0.87)	188,287(0.72)	253,098(1.08)	242,846(0.88)	288,001(0.93)
전주	188,706(0.97)	199,106(0.76)	223,165(0.95)	273,657(0.99)	310,651(1.00)
상이 계수	0.095	0.142	0.125	0.102	0.092
대수 표준 편차	0.088	0.154	0.154	0.122	0.110

자료 :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 Tape, 각년도.

주 : 실질임금은 각 도시별 제조업근로자 월평균임금을 1986년 서울지역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deflate 함.

한편 정부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라 특정지역의 개발이 다른지역에 비하여 우선순위를 갖는다면 성장에 따른 해당지역의 발전가능성 등 장기적인 혜택으로 인하여 현재의 임금이 낮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는(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기존개발지역으로 이주하기 보다는) 개발우선순위의 지역에 살려고 할 것이다.

### III. 임금함수 추정

#### 1. 모형

II 장에서 논의된 도시간 임금격차의 결정요인중 생활비와 노동공급측면요인(근로자의 질을 포함하여)의 지역간 차이를 조정한 후의 순임금격차를 추정하기 위하여 본고는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로 부터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임금함수(Earning Function)를 추정하고자 한다. (식 1)에 의하면 개개인의 실질임금은 (i) 근로자의 질, (ii) 보상(Compensating), (iii) 지대(Rent) 및, (iv) 차별(Discriminating) 변수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ln(Y/P) = a_0 + \sum_i a_{1i} AA_i + a_2 EDU + a_3 TEN + a_4 TEN^2 + a_5 EXP + a_6 EXP^2 \\ + a_7 EXP \cdot MAR + a_8 EXP^2 \cdot MAR + a_9 MAR + a_{10} WHOUR + \sum_j a_{11j} I_j \\ + \sum_k a_{12k} O_k + a_{13} SIZE + a_{14} PUBLIC + e \dots\dots\dots (1)$$

- 여기에서 Y = 월급여총액 (=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 상여금총액/12),  
P = 생활비지수,  
AA<sub>i</sub> = 도시 Dummy 변수,  
EDU = 학력년수  
TEN = 근속년수  
EXP = 타직장에서의 경력년수 (=나이 - EDU - TEN - 6),  
MAR = 결혼여부 Dummy변수 (미혼=1, 기혼=0)  
WHOUR = 월근로시간  
I<sub>j</sub> = 산업 Dummy변수,  
O<sub>k</sub> = 직종 Dummy변수,  
SIZE = 기업체규모 Dummy변수 (고용인 500인이상 기업체=1, 고용인 500인미만 기업체=0)

PUBLIC = 공기업 Dummy변수 (공기업=1, 민간기업=0),

그리고 e=오차를 나타냄.

Y는 근로자 개개인의 월급여총액으로 정액급여, 초과급여와 전년도 상여금총액의 1/12의 합계이다. 종속변수로서 시간당 임금대신 월급여총액을 사용하므로(우리나라 고용관계상 임금이 시간급보다는 월급의 개념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월근로시간을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P는 도시별 생활비지수로 (AA<sub>i</sub>가 서울에 대한 각 도시의 임금격차를 나타내듯이) 서울에 대한 각 도시의 생활비 수준을 나타낸다. 생활비지수는 경제기획원에서 도시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정을 위해 조사하고 있는 쌀, 주거비 등 411개 품목의 1986년 3월말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품목별 가중치는 경제기획원의 도시가계 조사로부터 추정된 전도시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지역의 생활비지수는  $\sum X_{ij} W_j / \sum X_{서울j} W_j$ 로 표시된다.(여기에서 X는 품목, W는 가중치를 나타냄)

AA<sub>i</sub>는 지역 Dummy변수로서 도시간의 순임금격차를 나타낸다. Perfect Collinearity를 고려하여 서울을 제외시켰으므로 추정계수는 서울에 대한 각 도시의 임금격차이다. 즉 AA<sub>i</sub>과 서울의 임금비율은  $W_i / W_{서울} = \exp(a_{1i})$  (여기에서 W는 임금을 표시함)이다.

근로자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는 EDU(=학력), TEN(=근속년수), EXP(=타직장



에서의 경력년수)로서 한직장에서 축적된 Firm-Specific Human Capital은 다른 직장의 경력보다 현재의 직장에서의 효율성이 크므로 경력을 TEN과 EXP로 구분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Human Capital의 마모로 각각 TEN<sup>2</sup>, EXP<sup>2</sup>의 계수 추정치인  $a_4$ ,  $a_6$ 가 (-)라는 것을 Human Capital 이론은 예측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의 경력년수를 (나이-TEN-6)로 대체하였으므로 실업등에 의하여 경력년수가 과대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혼 Dummy변수와 EXP, EXP<sup>2</sup>의 교차항을 임금함수에 포함시켰다. 출산 등 가사노동부담에 의해 여성근로자의 경력년수가 과대계상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a_7$ 와  $a_8$ 의 sign은 각각 (+), (-)로 기대된다.

산업(혹은 직업)에 따른 작업환경, 직장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보상변수(Compensating Variable)로서  $I_j$ (산업 Dummy),  $O_k$ (직업 Dummy)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I_j$ 와  $O_k$ 는 자료조사 당시의 시장주요상황, 사회적관습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산업은 제조업소분류(표준산업분류)기준으로 27개 업종으로 구분하였으며 음료품제조업이 제외되었다. 직업은 (1) 전문·기술직, (2) 행정·관리직, (3) 사무직, (4) 판매직, (5) 서비스직, (6) 생산직으로 구분하고 전문기술직이 제외되었다.

지대(Rent)변수로서 SIZE과 PUBLIC이 포함되었다. Park(1987)등은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 박 세일(1986)은 공기업에 의한 임금 Premium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sup>9)</sup>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고용, 임금, 진급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데 차별(Discriminating)에 의한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임금함수를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 따로 추정하였다. 끝으로 결혼 Dummy는 가족에 대한 의무감, 안정성 등으로 기혼자의 생산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임금관계상 가족수당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었다.

## 2. 자료

노동부에서 매년 실기하고 있는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1986년도 Tape로부터 7% 임의추출(SAS의 Random Sampling Method 사용)된 자료가 사용되었는데 남자근로자 수가 7,289명 여자근로자 수가 6,819명이다. 직종별 임금조사는 고용인 10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의 월급여총액, 전년도 상여금총액, 근로자인적사항 및 사업체 특성등을 조사한다.

9) 본연구는 SIZE와 PUBLIC에 의한 Rent가 각도시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비례적으로) 가정한 것이다. 이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SIZE(PUBLIC)별로 나누어 임금함수를 추정할 수 있으나 SIZE와 PUBLIC이 본고의 중점분석변수가 아니므로 생략하였다.

한편 직종별 임금조사는(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금관련조사중 가장 포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인 10인이상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같은 자료의 제약이 본고의 분석대상을 제조업에 국한시킨 이유이기도 하다. 제조업 10인이하 사업체의 비중이 3차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sup>10)</sup>

### 3. 추정결과

〈표 3〉은 Ordinary Least Square방법에 의한 임금함수 추정결과이다. 임금함수의  $R^2$ 가 남, 여, 각각 0.71, 0.475로 나타나서 함수의 설명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A_1$ 에 대한 논의는 다음장으로 미루고 다른 변수에 대하여 살펴보자.

근로자질에 관한 각 계수추정치인 방향(Sign)은 기대하였던대로 나타났다. 각 계수의 크기를 보면, 학력(EDU)은 남성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반면 근속년수(TEN)는 여성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한편 다른 직장에서의 경력년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sup>11)</sup>

상당수의  $I_j$ (산업 Dummy)와  $O_k$ (직업 Dummy)가 단층 t-검증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_j$ 와  $O_k$ 를 임금함수에 포함시킴으로써 얻는 설명력의 증가가 자유도(Degree of Freedom)상실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Null Hypothesis는 1%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sup>12)</sup>

기업체 규모에 의한 Rent는 남·여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공기업계수는 여성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 여성근로자의 공기업 Rent가 크다는 사실은 공적부문에서의 여성차별이 적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WHOUR(월근로시간)과 MAR(결혼유무)의 계수추정치도 남·여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다. 남자보다 여자의  $a_{10}$ 의 크기가 커서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임금상승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근로자의 생산적 비중이 남자보다 높기 때문이다. 한편 MAR의 계수추정치는 남자가 작아서 가족의 1차적인 수입원으로서의 남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10) 1984년 광공업통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고용인 5인이상 제조업근로자중 5-9인 고용인업체 종사자가 3.9%였다.

11) 여성의 경우 다른 직장에서의 경력년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하기 어려운 여성의 경우에는 EXP가 유사변수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12) F의 값이 남·녀 각각 63, 95로서  $F_{0.01}(31, \infty)=1.69$  보다 크다.

〈표 3〉 임금회수 추정결과

변수	남	자	여	자	변수	남	자	여	자
INTERCEPT	11.925 (0.042)***		11.867 (0.051)***		I12	0.024 (0.018)		0.027 (0.018)	
AA <sub>1</sub> (부산)	-0.050 (0.010)***		-0.075 (0.007)***		I13	0.329 (0.029)***		0.881 (0.059)***	
AA <sub>2</sub> (대구)	-0.042 (0.015)***		-0.139 (0.012)***		I14	0.096 (0.051)		-0.024 (0.120)	
AA <sub>3</sub> (인천)	0.034 (0.010)***		-0.001 (0.009)		I15	-0.123 (0.019)***		-0.077 (0.015)***	
AA <sub>4</sub> (대전)	-0.080 (0.019)***		-0.104 (0.012)***		I16	0.031 (0.030)		-0.024 (0.036)	
AA <sub>5</sub> (창주)	-0.021 (0.024)		0.062 (0.145)***		I17	-0.146 (0.056)***		-0.070 (0.031)	
AA <sub>6</sub> (광주)	0.027 (0.023)		0.053 (0.022)***		I18	0.035 (0.036)		0.055 (0.046)***	
AA <sub>7</sub> (전주)	0.062 (0.025)***		-0.125 (0.002)***		I19	-0.013 (0.025)		-0.010 (0.049)	
EDU	0.050 (0.002)***		0.024 (0.002)***		I20	0.025 (0.020)		0.043 (0.048)	
TEN	0.065 (0.002)***		0.082 (0.003)***		I21	-0.156 (0.051)***		0.040 (0.086)	
TEN <sup>2</sup>	-0.001 (0.000)***		-0.004 (0.000)***		I22	-0.097 (0.017)***		-0.055 (0.023)***	
EXP	0.018 (0.002)***		-0.000 (0.002)		I23	-0.004 (0.020)		0.032 (0.041)	
EXP <sup>2</sup>	-0.001 (0.000)***		-0.000 (0.000)		I24	-0.020 (0.016)		0.024 (0.014)***	
EXP×MAR	0.015 (0.004)***		0.026 (0.003)***		I25	0.089 (0.017)***		0.104 (0.030)***	
EXP <sup>2</sup> ×MAR	-0.000 (0.000)		-0.001 (0.000)***		I26	-0.144 (0.027)***		-0.006 (0.020)	
SIZE	0.047 (0.008)***		0.049 (0.006)***		I27	-0.150 (0.020)***		-0.074 (0.016)***	
PUBLIC	0.231 (0.030)***		0.383 (0.044)***		01(관리직)	0.309 (0.021)***		0.876 (0.210)***	
WHOUR	0.001 (0.000)***		0.002 (0.000)***		02(사무직)	-0.085 (0.014)***		-0.365 (0.030)***	
MAR	-0.254 (0.019)***		-0.133 (0.026)***		03(판매직)	-0.045 (0.041)		-0.275 (0.083)***	
002	0.065 (0.024)***		0.024 (0.039)		04(서비스직)	-0.453 (0.026)***		-0.521 (0.037)***	
I03	-0.055 (0.160)***		-0.014 (0.013)		05(생산직)	-0.265 (0.015)***		-0.542 (0.030)***	
I04	-0.151 (0.018)***		-0.129 (0.013)***						
I05	-0.124 (0.036)***		-0.042 (0.035)		R <sup>2</sup>	0.71		0.475	
I06	-0.224 (0.020)***		-0.077 (0.015)						
I07	-0.167 (0.026)***		0.038 (0.030)***		F	364.389		126.961	
I08	-0.164 (0.027)***		0.059 (0.029)						
I09	-0.066 (0.032)***		-0.077 (0.052)						
I10	0.078 (0.020)***		0.032 (0.026)						

주: 1) ( )의 숫자는 표준오차임.

2) \*\*\*단 계수 추정치가 단통 t-검증에서 1%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3) \*\*단 계수 추정치가 단통 t-검증에서 5%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IV. 도시간 순임금격차

임금함수는 7개의 도시 Dummy변수로써 서울을 포함한 8개 도시간의 실질순임금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녀 모두 도시간에 실질순임금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Null Hypothesis(즉  $AA_1=AA_2=\dots=AA_7=0$ )는 (F값이 각각 13.5로서  $F_{0.01}(7, \infty)=2.64$  보다 크므로) Refute되었다. 즉 도시간 임금격차는 지역간의 생활비와 근로자의 질 등의 차이에 의하여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표 4>에 나타난 도시간 순임금격차와 명목임금격차를 비교하면 명목임금격차의 상당부분이 근로자의 질, 생활비 등의 도시간 차이에 의하여 설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근로자 순임금격차는 남·녀별 순임금격차를 구한 후 근로자 남·녀비율을 가중치로 하여 추정하였다.

7개의  $AA_i$  중 남자는 청주와 광주, 여자는 인천을 제외하고는 5%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표 3>은 보여주고 있다. 각 추정치는 서울에 대한 각 도시근로자의 상대적 순임금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인천에 살고 있는 남자는 같은 조건(지역을 제외한 임금함수에 포함된 모든 변수가 같은)의 서울에 살고 있는 남자에 비하여  $[\exp(0.034)-1] \times 100 = 4\%$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각 도시의 서울에 대한 순임금비율(각 변수의 평균치를 계수추정치에 곱한 순임금의 상이계수)은 남자 0.93-1.06(0.045), 여자 0.87-1.06(0.087)로서 여자의 도시간 순임금격차가 남자보다 크다. 한편 근로자 남·녀 비율을 가중치로 한 각 도시의 서울에 대한 전근로자 순임금비율은 0.92-1.03이다.<sup>13)</sup> 특히 부산, 대구, 대전의 서울에 대한 순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표 4>는 보여주고 있다.

임금함수의 추정결과 대부분의  $AA_i$ 가 유의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sup>14)</sup> 우선(자본의 이동과는 달리) 노동력의 이동에는 상당한 이동비용(Transportation Cost)이 발생하므로 지역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시일을 요하는데, 1970년대 후반의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이후 자율조정과정이 진행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혹은(식 1)의 임금함수에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으로 대변되는 노동수요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한국의 지역간 임금수준의 결정에(공급측면요인과 함께) 수요측면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3)  $AA_i$ 계수 추정치가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으면 서울과 임금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14) 임금함수에 지역간 비화폐적 혜택의 차이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보다 지역간의 비화폐적 혜택의 심한 미국의 경우에도 비화폐적 혜택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의 설명은 실증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4〉 도시간 순임금격차

서울 = 1.00

	전체명목 평균임금	실질 순임금		
		전 체	남 자	여 자
서 울	1.00	1.00	1.00	1.00
부 산	0.78	0.94	0.95	0.93
대 구	0.74	0.92	0.96	0.87
인 천	0.90	1.02	1.04	1.00
대 전	0.74	0.91	0.93	0.90
청 주	0.73	1.03	1.00	1.06
광 주	0.89	1.03	1.00	1.05
전 주	0.90	0.98	1.06	0.88
상이계수	—	—	0.045	0.087

필자는 두가지 견해중 전자가 보다 적절한 설명이라고 본다. 〈표 2〉에서 보듯이 1980년대 초반이후 도시간 임금격차가 완화하는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실질순임금의 상이계수(0.054)가 명목순임금의 상이계수(0.125) 보다 작다는 것은 근로자가 순임금(Net Income)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시간에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임금함수에 포함된 26개의 산업 Dummy변수에 지역노동시장 특성의 상당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임금함수 추정결과 나타난) 영남권보다 높은 호남권의 임금수준과 성장비혜택 지역에 대한 정부의 소득정책의 성공과는 무관하다. 호남권이 취업자의 임금수준은 높으나 취업기회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1985년 현재 전주와 광주의 제조업(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취업자는 부산과 대구의 8.3%에 불과할 뿐 아니라 1980-85년 사이에 전국의 제조업 취업자는 10% 증가하였으나 전주와 광주는 각각 2%, 8% 감소하였다.

끝으로 최근에 활성화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한국의 지역간 임금격차는 상당히 변화되리라 예상된다. 노동조합은 동일지역·동일업종의 근로자 평균임금수준을 통상적인 임금협상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제조업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단을 중심으로 급속히 발달하여 온 결과 노동조합의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동일지역-동일임금현상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활성화에 따른 지역간 임금격차의 변화는 의미있는 향후 연구과제라 하겠다.

# 參考文獻

1. 박 세일,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수준 및 구조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86.
2. 박 환구, “지역별 임금구조의 특성과 변화”, 「한국의 임금구조」, 박 환구 · 박 세일 공저, 1984. PP.351-375.
3. Coelho, Philip and Moheb Gabli, “The End of the North-South Wage Differential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71. PP.932-937.
4. Gerking, Shelby and William Weirick, “Compensating Differences and Interegional Wage Differential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83. PP.4-83-487.
5. Bellante, Don, “The North-South Differentials and the Migration of Heterogeneous Labo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79. PP.166-175.
6. Dunlevy, James and Don Bellante, “Net Migration, Endogeneous Incomes, and the Speed of Adjustment to the North-South Differential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anuary, 1983. PP. 66-75.
7. Johnson Gerge, “Intermetropolitan Wage Differentials in the United States”, *The Measurement of Labor Cost* ed. by J.E. Triplett, Chicago : NBER, 1983.
8. Muth, Richard, “Comment : Intermetropolitan Wage Differentials in the United States”, *The Measurement of Labor Cost* ed. by J.E. Triplett, Chicago : NBER, 1983.
9. Park, Young-bum, “Earnings, Size of Employer, and Labor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The Korean Economic Review*, 1987. PP.271-295.
10. Sahling, Leonard and Sharon Smith, “Regional Wage Differentials : Has the South Risen agai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anuary, 1983. PP.131-135.
11. Scully Gerald, “Interstate Wage Differentials : A Cross Section Analysi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69. PP.757-773.